

# 여야 '입법전쟁' 상임위별 각개전투 개시

국회 대정부 질문이 18일로 끝나고 19일부터 상임위가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차 입법전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앞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상임위가 시작된다"며 "모든 법안들을 상임위에 상정해서 토론하고 타협하고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각 상임위 의원들은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2차 입법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최종점검하고 결전태세를 갖췄다.

◇한나라당=지난 1차 입법전쟁에서 허락했던 본회의 일괄 상정을 포기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민주당과 협의해 모든 법안을 상정하고 대체 토론한 뒤 소위에 넘겨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회의의 진행을 방해해도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의 판단에 따라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이 통용되기 위해선 여

## 한나라 일단은 野와 협의... 다수결 정면 돌파기로

## 민주당 저지 1순위는 미디어법, 필리버스터 불사

의 힘이 필요하다고 판단, 민주당의 'MB악법' 캐치프레이즈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재탕 삼탕 우려먹은 MB악법 네이밍(작명)은 흑색선 전입이 분명해졌다"며 "자기가 집권시절 추진한 법안들을 인제 와서 매도하고 폭력으로 막는 것은 자기부정의 극치"라고 공격했다.

최대 쟁점 법안은 미디어법.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선 다른 법안들보다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미디어법을 해당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 상정하는데 동

의한다면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일부 조항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고, 사회 관련 법안은 상정절차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한나라당이 또다시 무리수를 둘 경우 '2차 입법전쟁'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대응책 마련에 나섰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노는 국회' 논쟁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3월 임시국회 소집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개원 뒤 매일 국회가 일해왔는데 공전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야당과의 협력을 고민해야 할 여당이 터무니없는 핑수를 써서 3월이 된 일을 꾸미려고 이러는 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7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제출했던 법안을 18대 국회에서 야당으로 바뀐 후 극력 반대하고 있다는 한나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마스크금지법'은 2006년 구 민주당 이상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당론이 아니었고, 통신비밀보호법도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폐기시켜 상정하지도 못했다"며 "한나라당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 갈등을 촉발하는 선동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미디어법이 계류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법이 계류된 정무위가 최대 쟁점 상임위가 될 것으로 보고 구체적 저지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정가 락운지

#### 강운태 의원 복당 문제 싸고 파문

○민주당 광주 남구지역위원회가 최근 복당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무소속 강운태 의원 입당지지에 서명한 당 소속 남구의회 의원 2명을 '행당 행위'로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내용을 겪고 있다.

남구지역위원회는 18일 최근 강 의원 입당지지에 서명한 당 소속 남구의회 의원 2명을 '행당 행위'로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민주당 소속 남구의회 의원 7~8명은 원만한 당 운영을 위해 현역의원의 입당이 필요하다며 서명 권유에 응한 후 지역위원회가 제제 움직임을 보이자 일부는 서명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 황호순 지역위원장 임기 보장 요구

○무소속 이윤석 의원의 민주당 복당이 지난 1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현 황호순 무안·신안 지역위원장 측 당원 20여명이 18일 민주당 서울 중앙당사를 찾아 현 지역위원장의 임기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정세균 대표를 면담하고 "당헌·당규 상 지역위원장의 임기는 2010년 7월까지이니 이 의원의 복당 여부와는 별개로 지역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며 "황 위원장이 이 때까지 당무를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광주 북구의회 의장에 구희호 의원

○"뒤틀린 선거" 과문으로 동료 의원들로부터 의장이 해임된 광주 북구의회는 18일 오전 제161회 임시회를 열어 신임 의장에 구희호(57·사진·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

북구의회는 이날 열린 후반기 의장 보궐 선거에서 구 의원이 출석의원 18명 가운데 10명의 지지를 얻어 신임 의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날 선거는 4명의 후보가 나선 가운데 두 차례에 걸친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2차 투표에서 6표씩을 얻은 구 의원과 김태훈 의원이 결선 투표를 벌인 끝에 구 의원이 당선됐다.

한편 북구의회는 지난해 7월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운호(64) 의원이 현지 국회의원 부인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8천만원의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자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어 최 의원을 의장직에서 해임했다.



#### 광주시의회 인권조례 제정 간담회

○광주시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18일 오후 광주시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명자 광주시의원과 조상근 전남대 교수, 이정강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장, 김승호 광주시 민주정신선양과장 등이 참여해 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인권조례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이명자 의원은 "인권조례는 광주가 지니고 있는 민주·인권·평화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인권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며 "앞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쿠데타' 공방

### 민주 천정배 의원 "MB정권 7가지 쿠데타 자행"

### 김효재 의원 "표 준 국민이 쿠데타 세력이나"

민주 천정배 의원이 18일 대정부 질문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 '쿠데타 정권'이라고 비판하자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이 바로 반박하는 등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간 국민주권을 짓밟고 하늘을 거스르는 공안, 경제, 언론, 노동, 생태환경, 역사 등 7가지 쿠데타를 자행했다"며 "이명박 쿠데타 정권하에서 서민대중은 신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고소영 S라인의 친위부대와 공안세력이 득세하고 있다"며 "불과 1년 만에 이 나라에 지옥도를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천 의원은 또 용산참사에 대해 "정부의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한 학살"이라고, 청와대 e-메일 홍보지침은 "청와대가 '강호순 살인사건'을 용산참사로 덮기 위해 활용하라고 지시한 '패륜 메일 게이트'"라고 각각 주장하면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

구했다.

이어 대정부 질문에 나선 김 의원은 "다음 발언을 대기하느라 앞에서 기다리다 화장실에 가서 귀를 씻고 오고 싶은 심정이었다"며 흥분했다.

김 의원은 또 "운동 쿠데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우리 국민이 쿠데타 세력이나"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선출된 대통령에게 쿠데타를 운운하는가"라며 "정부가 방송을 장악한다고 하는데 그 장악된 방송이 석 달 전에 있지도 않은 광우병을 부추겨 온 거리를 마비시키게 했는가. 그계 장악된 방송인가"라고 반문했다.

두 의원이 발언하는 과정에서 양당 의원들이 서로 고성과 야유를 쏟아내면서 본회의장이 수리장으로 변하자 김형오 의장은 "의석에서는 발언권이 없다. 큰소리를 치는 사람은 그 다음 국회에 잘 안 보이더라"고 진화에 나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8일 전남대 명예 철학박사 학위 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 전남대를 방문한 한나라당 정몽준(승용차 뒷 좌석) 최고위원이 학생들의 반발로 학위 수여가 무산되자 되돌아가고 있다.

## 정몽준 최고 전남대 名博 또 무산

### 학생 1천명 반대 시위로

### 전남대동창회 유감 성명

대한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을 가지려 했으나, 학생들의 반발과 이에 따른 정 최고위원의 고사로 무기한 연기했다고 밝혔다.

신입생 환영 행사를 위해 교내에 모인 학생 1천여명은 행사장 앞으로 몰려들어 5·18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전남대가 한나라당 최고위원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그의 집입을 막았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의 전남대 명예 철학박사 학위 수여가 또다시 무산됐다.

전남대는 18일 오후 광주 용봉캠퍼스 내 국제회의동에서 정 최고위원에

다.

정 최고위원은 대학 인근에서 대기하다 동구 학생들의 의과대로 옮겨 학위를 받으려 했지만 학생들의 반발을 감안해 학위 수여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남대 총동창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결정된 학위 수여가 일부 학생들의 물리적 행동으로 무산돼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전남대는 2007년에도 당시 무소속 이던 정 최고위원에게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주려 했으나 철학과 교수들과 학생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박 특혜아이템**  
영입 사원 모집

영입 대상: 2009년 2월 19일 ~ 2월 25일

모집 분야: 영업, 마케팅, 기획, 인사, 회계, 총무, 시설, 안전, 기타

모집 요건: 1. 학력: 고졸 이상, 2. 경력: 1년 이상, 3. 나이: 20~35세, 4. 기타: 기타 특혜 조건

모집 절차: 1. 서류 접수, 2. 면접, 3. 합격 통보

문의: 1588-2790

(주)우리빌 광주-전남본부

**아이엘리시아**  
상복권 판매

아이엘리시아는 피부미용 전문 브랜드입니다. 피부미용, 피부관리, 피부진료, 피부연구를 위한 최첨단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복권 판매: 1000원 구매 시 1000원 상당의 상복권 1장 제공

문의: 062) 671-1199